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Monthly Environmental Engineer

월간

환경기술인

2022.

4

ISSN 1739-8150



포지인물과의 대화
김조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원유 대체 페플라스틱 일본에 활성화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재활용하기 쉬운 '단일재질' 포장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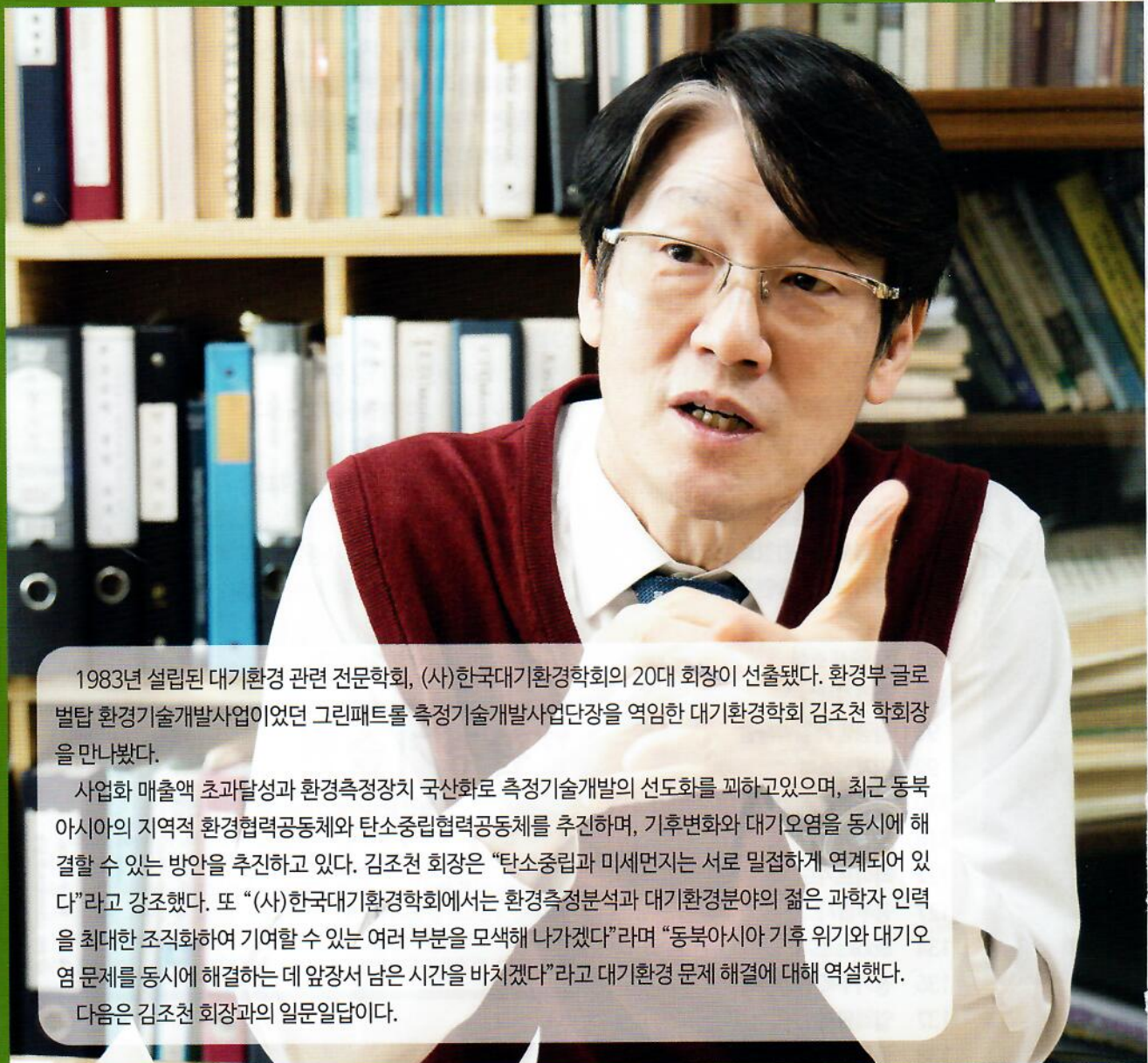
2020 배출권거래제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보고서 발간



대한민국 환경기술인협회
Korea Environmental Engineers Association

김 조 천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젊은 과학자 기반으로 미세먼지, 탄소중립 문제 해결”



1983년 설립된 대기환경 관련 전문학회, (사)한국대기환경학회의 20대 회장이 선출됐다. 환경부 글로벌 탈탄소 환경기술개발사업이었던 그린패트를 측정기술개발사업단장을 역임한 대기환경학회 김조천 학회장을 만났다.

사업화 매출액 초과달성과 환경측정장치 국산화로 측정기술개발의 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환경협력공동체와 탄소중립협력공동체를 추진하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조천 회장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는 환경측정분석과 대기환경분야의 젊은 과학자 인력을 최대한 조직화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동북아시아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남은 시간을 바치겠다”라고 대기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역설했다.

다음은 김조천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대담사진(대담 시 거리를 두고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고 진행했습니다.)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당선인사

늦었지만 (사)한국대기환경학회 20대 회장직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과 함께 전국의 환경기술인에게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임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환경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김조천 교수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는 1983년 설립되어 대기환경 및 대기오염과 관련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 유수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 연혁 및 조직구성 등을 소개해 주세요.

(사)한국대기환경학회는 1983년 설립된 대기환경 관련 전문 학술단체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회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최신 정보 공유 및 전문성 배양 등 대

기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 학술대회와 더불어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학생콜로키움을 매년 개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에 6회 발간되는 “한국 대기환경학회지”는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등재학술지 및 2020년 SCOPUS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1년에 4회 발간되는 SCOPUS 등재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와 더불어, 연간 총 10회에 걸쳐 정기 학술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직은 2022년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8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조직도

명), 이사 (31명), 감사 (2명), 종신회원 (189명)과 특별회원 49개 단체, 단체회원 44개 단체, 정회원 3,691명(종신회원 포함), 준회원 3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은 대학교수, 산학연관 연구원, 공무원, 산업체 및 일반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조천 회장님께서서는 서울시 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단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그린패트를 측정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 등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회장직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에피소드 및 임기 동안의 학회 운영계획과 역점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일하시던 2008~2012년경 서울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시비:약 60억 원)의 사업단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를 인공지능(AI) 통합관리를 통하여 개선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실증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및 AI 이슈가 시계적으로 너무 빨리 관심의 정도가 적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2010년경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2014년 말 환경부 장관 지정사업단인 그린패트를 측정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을 약 7년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사회를 이해하고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학자로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회장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임기 동안의 학회 운영계획은 모든 임원들과 각종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이 우리 몸의 혈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행이사회 및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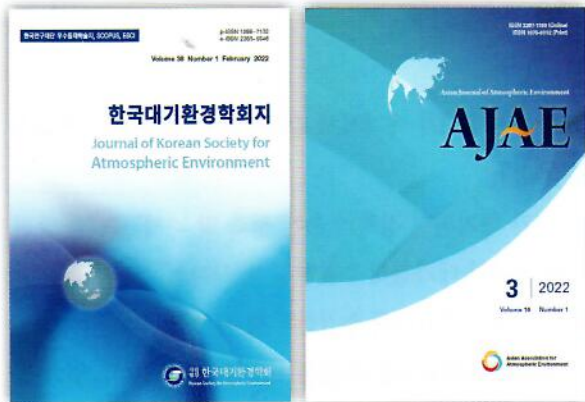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특히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2개월에 한 번씩 분과위원회와 오픈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은 첫째로, 영문학회지의 SCIE 등재를 임기 내에 이루어 내고, 탄소중립 위원회와 젊은과학자회의(Yong Bridge Scientist)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시대에 활기찬 젊은 학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학회 4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통하여 학회의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고 향후 학회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대기환경 분석의 중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논문’과 ‘아시아 대기환경학회지(AJAE)’가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회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 한반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상이변과 생태계 변화가 감지되면서, 그 이면에는 대기환경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사)한국 대기환경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좌)국문학술지, (우)영문학술지

는 학회로 1983년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국내 대기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국문 및 영문 논문 발간과 함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녹색도시(Green City), 저탄소도시(Low Carbon City), 무배출도시(Zero Emission City), 탄소중립도시(Carbon Neutral City) 등 새롭고 다양한 도시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경제, 환경, 사회 발전 정책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가능한 도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은 탄소 발생이며, 전 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11위 국가로 전 세계 배출량의 1.51%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시대'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위한, 학문적 근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발맞추어 한국대기환경학회지는 1985년 한국대기보전학회지로 출범하여 1999년 학술지 명칭을 현재의 대기환경학회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대기환경 분야의 대표 학술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회 회원들의 활발한 학술성고가 기초가 된 연구논문/기술논문/총설논문 등의 투고에 힘입어 2000년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 2002년에는 등재학술지로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우수등재

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에는 SCOPUS에 등재되어 대기환경에 관한 대표 전문학술지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해 오고 있습니다. 일 년에 6회, 약 60편가량의 대기환경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 이하 분야별 전문 편집위원 20인으로, 본 학술지의 세부 전공 분야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편집위원들의 세부전공 분야에 따라 학회지에 분류되어있는 분과를 편집위원이 담당하여 학술지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지 개선 및 연구성과 홍보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학술지 영문홈페이지 및 논문투고시스템을 제작하여 Open Access를 진행하여 본 학회지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Online ISSN을 부여함에 따라 전자저널 발행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지인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AJAE)는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일본 및 중국 대기환경학회가 연 4회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이며 한·중·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저명한 editorial board를 구성하였습니다. AJAE는 2012년 Elsevier에서 제공하는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2016년에는 Clarivate의 Emerging Source Citation Index (ESCI)에 등재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최대 Open Access 저널 데이터베이스인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DOAJ)에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Elsevier에서 제공하는 Engineering Village의 GEOBASE에 등재되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자체 산정한 영향력 지수(IF)는 2020년 기준으로 1.764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SCOPUS의 저널 영향력 지수인 CiteScore도 2022년 3월 2.6으로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위상에 발맞추어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on-line으로 출간된 논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 수준에 맞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AJAE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Digital Object Identifier(DOI) 데이터베이스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대기환경학회, 탄소중립 시대라는 국가목표 이념 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환경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의 환경기술인 또한 대기환경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학회 회원 가입 조건 및 회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한국대기환경학회는 정회원 3,500명 이상의 국내 유일의 대기환경 분야 전문 학술단체입니다. 정회원 가입을 통해서 학회와 학술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활동을 통한 주요한 혜택으로는 학술발표회, 기술강습회, 강연회 등의 참석,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발간된 도서를 구독하실 수 있으며,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지도, 자문,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회의 참석,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의 장려 및 표창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산업 특별주제를 통한 워크숍 및 KOSAE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학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본 학회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정책 발전방향 모색 포럼]

최근 (사)한국대기환경학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다음

과 같은 1, 2, 3차 대기정책 발전방향 모색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대기환경 정책의 추진 성과 및 과제”, “산업·발전 부문 국내외 대기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그리고 “수송 부문 국내외 대기정책 추진현황 및 시사점”

마지막 포럼인 4차 포럼은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WHO 대기질 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정책 발전방향”

[국제 대기질·기후변화 심포지엄]

기후변화·대기질 통합관리 국제심포지엄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최하고 한국기상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등의 학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포지엄입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도 심포지엄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 학회의 탄소중립 관련 활동을 홍보하고 위원회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일시 : 2022년 4월 6일

▶ 장소 : 여의도 CMM빌딩 컨벤션홀

▶ 주관 : 국립환경과학원

▶ 주최 : 한국대기환경학회, 기후변화학회, 기상학회

[2022년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학생콜로키움]

2022년 한국대기환경학회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학생콜로키움이 “탄소중립 시대 동북아시아 대기질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12(목)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공동학술심포지엄 및 학생콜로키움은 학술위원회와 교육·미래위원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공동학술심포지엄은 각 분과별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콜로키움은 학생회원들의 다양한 학회 행사 참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세션입니다.

학생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발표



▲ 2022년 공동학술심포지움 및 학생콜로키움 홍보 포스터

상(1인), 우수발표상(2인), 장려상(5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 ▶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09:00~17:30
-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대회의실, 교육장
- ▶ 주최 :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
- ▶ 운영방식 : (1부-오전) 학생콜로키움, (2부-오후) 공동 학술심포지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학회에서 대기환경 분야의 발전이나 국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탄소중립의 개념이 대중화된 것은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로 권고하였고, 그 방법으로 2050년까지 세계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개념이 대중화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아직은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를 가역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대응은 시급합니다. 따라서 한국대기환경학회 내에서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학회가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부터 한국석유공사, SK E&S, 하이젠에너지 같은 산업계의 전문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곳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학계 인력들까지 모셔서 학회 내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학회가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탄탄한 과학적 기반 아래서 목표가 설정되고 감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가가 아직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는 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심포지움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계획 중인 심포지움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오는 4월 6일에 국제 대기질 탄소중립 통합 심포



▲ '18년 정도관리 연찬회



▲ '19년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

지엄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imate Change and Air Quality"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는 한국기상학회, 한국기후변화 학회 등과 협업하여 이 심포지엄의 구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상학회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국내 탄소중립 심포지엄을 올해 봄, 가을에 걸쳐 2회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심포지엄은 오는 4월 말에 부산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심포지엄 외에도 국내 전문가들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위하여, 학회지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스페셜 이슈를 발간하여 관련 논문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중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은 개념 자체가 대중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2019 Green Patrol International Symposium

November 4th,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New Millennium Hall, B2F)

• Organized b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 Hosted b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 Supported by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19년 11월 국제심포지엄

대중에게 생소하게 다가가기 쉽습니다.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탄소중립 개념 및 정책을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학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OVID-19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학회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면서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활동은 100% 비대면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직과 더불어 건국대학교 환경부 그린패트를 사업단을 맡으신 적이 있으신데요, 앞으로 대기환경 분야의 현황과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2014년부터 환경부 글로벌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된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7년간 약 700억 원)의 사업단장으로서 환경측정장치의 국산화에 온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초미세 먼지(PM-2.5) 측정기는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모든 지하철의 지하철역사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 30년간 미세먼지 관련 대기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정이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대기환경도 미세먼지에서 자연스럽게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그리고 발암성이 있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환경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측정 및 저감기술,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용 기술(CCU)이 향후에는 매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목표는 2050년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의 탄소중립 감축 노력의 실현 과정과 동시에 주변국의 탄소중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기환경에 미치는 과학적으로 영향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므로 기후변화의 강도와 지역적 영향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올해의 강원도 대형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이것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오염영향의 심화로 나타나는 과정들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예측, 관리에도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과 대기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



▲ 그린패트롤사업단 당시 개발된 KPASS



▲ '19년 이스라엘 대학교육 대표단 내방



▲ '19년 인도네시아 공무원 내방

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연계하여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과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어왔던 지역이며, 최근에 와서는 국가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역적인 협력체계의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환경협력공동

체와 탄소중립협력공동체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각국의 대기환경학회와 같은 지식공동체가 문제의 과학적 이해와 해결에 서로 우선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기후 위기와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Q 과학기술 기반 최초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우수한 국산화 환경측정장비를 국내외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비영리법인을 허가(재단법인 그린패트롤 국제환경기술연구원)받아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우선,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 우수한 국산 환경측정장치를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전국의 환경기술인들 및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환경기술인과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시대를 거쳐 가면서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역할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모니터링만 하던 시대를 넘어서 환경모니터링과 제어를 IoT와 함께 동시에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천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

주요학력

1986.03 ~ 1988.0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이학석사
1989.09 ~ 1992.08 University of Florida, 공학석사
1992.09 ~ 1995.08 University of Florida, 공학박사

경력 및 수상내역

2003.09 ~ 현재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2007.12 ~ 2012.11 서울 지하철 공기질 개선 사업단 사업단장
2014.12 ~ 2021.06 환경부 그린패트롤측정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
2015.12 ~ 2020.06 ISO TC 146 SC1 (대기배출원 분야 국내 위원장)
2017.09 ~ 2019.08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위원
2017.09 ~ 2019.08 환경부,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18.02 ~ 2019.01 국무조정실 미세먼지대책평가위원회 위원
2019.05 ~ 2019.07 University of Maryland 방문 교수
2020.01 ~ 현재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2021.12 ~ 현재 (재)그린패트롤국제환경기술연구원 이사장
2022.01 ~ 현재 (사)한국대기환경학회 학회장

학술상/연구상 (건국대학교 총장상, 2016.05.12, 2018.05.14)

학술상 (한국대기환경학회, 2015.11.05)

환경부 장관 표창 (환경부, 2013.06.05)

산학협력 유공자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1.11.22.)